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1**일(음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1재 : **7**월 **7**일(음 6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
2재 : **7**월 **14**일(음 6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재 : **7**월 **21**일(음 6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4재 : **7**월 **28**일(음 6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5재 : **8**월 **4**일(음 7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6재 : **8**월 **11**일(음 7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회향 : **8**월 **18**일(음 7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2**만원 기도비 - **3**만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 | 7

부처님 말씀 자비 / **이달의 법문**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 / **주지스님 법문** 자연의 섭리 / **걸망메고** 여름 감기의 가르침 / **감로의 글** 서건동진 / **수행여화** 내 인생의 花일라이트! / **특집** 목련존자의 구모생천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지장재일기도** /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 말씀

자비慈悲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이르시되

이 착한 법을 행하는 것은 큰 자비심이니

그러므로 어진 일을 행하나니

자비심을 행하면 덕德이 한량없이 크느니라.

나는 옛적에 자비스럽고 어진 일을 행하여

모든 마군魔軍을 항복받고

보리수菩提樹 아래 앉아서

위없는 도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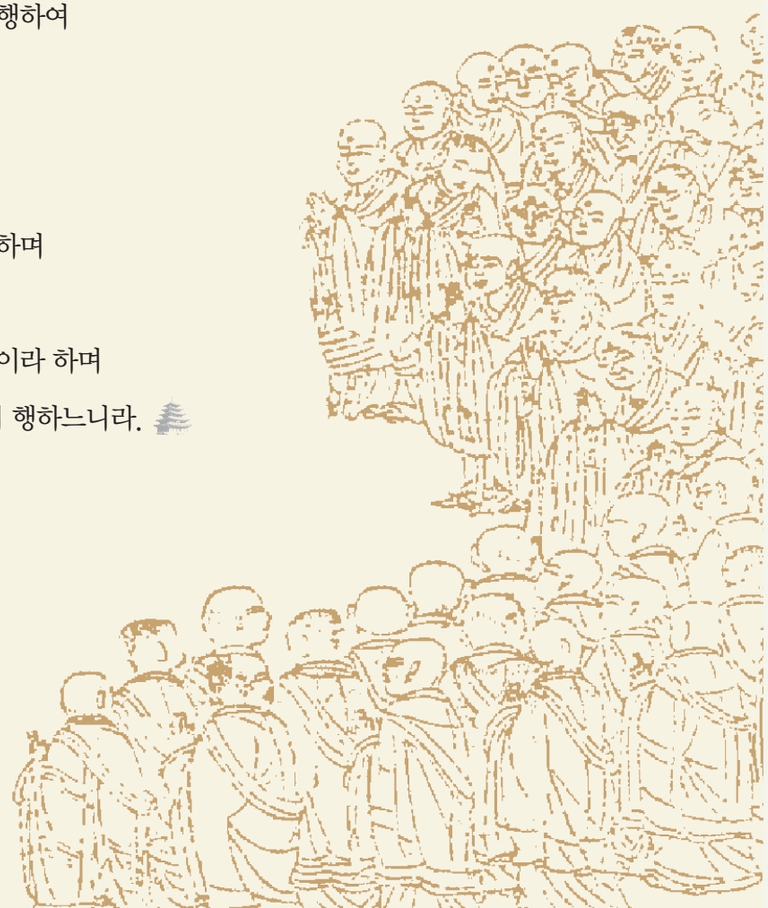
이러한 고로 자비가 가장 제일이라 하며

최승법最勝法인 줄 아느니라.

자비심을 행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이라 하며

마땅히 방편을 취하되 자비심으로서 행하느니라.

〈증일아함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7 | 통권 390호



2 부처님 말씀 자비

4 이달의 법문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자연의 섭리 정덕 스님

10 걸망메고 여름 감기의 가르침 보적 스님

12 감로의 글 서건동진西乾東震 장산 스님

16 수행여화 내 인생의 花일라이트! 현진 스님

19 특집 목련존자의 구모생천 편집실

20 법주사 행사일정

21 법주사 소식

22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23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지장재일기도

24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7월호 통권 390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보적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學語之輩는 說時似悟나 對境還迷하나니 所謂言行이 相違者也니라.
若欲敵生死인댄 須得玆一念子를 爆地一破하야사 方了得生死하리라.
然이나 一念子를 爆地破然後에도 須訪明師하야 決擇正眼이어다.
古德云하사대 只貴子正眼이요 不貴汝行履處라 하니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는 깨친 듯하나 경계에 이르러서는 도로 아득하게 된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 것이다.
만약 생사를 막아내려면 한 생각을 맞이하여 탁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을 깨뜨린 후에도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안목이 바른지를 결택 받아야 한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지를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은 높게 평하지 않네."라고 했다.

이는 서산대사가 이르신 말씀으로 들어볼수록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말이나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선禪에서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말에 현혹되어 공부를 그르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본래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가도 듣고 난 후에 차분히 참구하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누가 와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해주었다 칩시다. 잠깐은 맛있는 음식 생각에 배가 고픈 것을 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배가 고파지기 마련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언설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수행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험입니다.
공부에 좀 진전이 있다고 스스로 '이제 됐다'라며 으스대지는 맙시다.
반드시 밝은 선지식을 찾아 점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체유위법 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 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 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 應作如是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다.
또한 아침이슬과 같으며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범소유상 凡所有相
개시허망 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 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 卽見如來

무릇 모양 있는 것이란
모두 허망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진실이 아닌 줄 안다면
곧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신神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녕 목숨까지 던져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허망한 관념 때문에 세계는 전쟁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같은 것들을 위해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입니다.
아침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것들이 영원하리라 믿으며 미친 광대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마군魔軍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없는 것인데 허깨비에 속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군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 속성을 제대로 알아 관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자연의 섭리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작열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헉헉거리는 이 계절에
소나무와 떡갈나무 같은 낙엽송과 산죽이 시비분별 하지 않고
갈등 없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싱그러운 자연의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법주사 오리 숲길과 세조 길을 걷고 있노라면
그 안에는 '키가 크다, 작다,
멋있다, 멋없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싫다'라는 시비분별과 갈등이 없이
시절 인연에 따른 각자의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자연의 섭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여름 감기의 가르침

보적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생명이 약동하는 봄인 듯하더니
어느덧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 다가와
만물을 헉헉거리게 하기도 하고 긴 여름 장마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뜬금없이 감기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은사님을 잠깐 곁에 있으면서
빨리 감기가 나아지시기를 걱정하면서도
본인이 감기에 걸려 가벼운 증상이라고 처신을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적의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버림 경,s36:3〕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화살 경,s36:6〕

그리고 〔간병실 경,s36:7〕에서
"비구는 이처럼 사띠(正念, sati)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고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몸에 의해 조건 지워졌고,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有爲)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緣而生)이므로 몸에 조건 지워진
이 괴로운 느낌이 어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시면서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알아
느낌을 확립시키지 말고 낮은 단계의
족쇄(下分結)를 잘라내므로
즉시에 번뇌들이 멸진하게 되도록 시설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시설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생계의 실생활에 있어
꼭 두 번째 화살에 꿰 찔리는 것 같습니다.
초기 감기에 걸려서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곧 나아질 거라 하고 처신을 소홀히 하여서는
증상이 악화되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감기 초기에 사띠(正念,sati)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처방받고 했으면
이처럼 증상을 악화시켜 더 큰 고통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서건동진西乾東震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조석 예불문에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라고
나온다. 서쪽 인도에서 발원하여 중국으로
진출하여 해동 조선국에 까지 계시는
역대 큰 스님들이란 뜻이다.
서천西天(인도)에서는 보리달마가 28대 조사이지만
여기 동토東土(중국)에서는 초조初祖가 된다.
(서천 초조初祖는 마하 가섭존자이다.)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璨, 4조 도신道信,
5조 홍인弘忍, 6조 혜능(慧能, 1562~1636) 대사로서
33(삼삼) 조사의 맥을 장식한다.

보림사寶林寺의 창건설화創建說話: 기라성綺羅星같은
출중한 조사들이 배출될 것을 예견한
육조혜능대사께서 절을 짓겠다 하시니,
조숙량거사가 땅을 시주하겠다고 선뜻 나섰다.
"대사께서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되시나요?" 물었다.
이에 혜능대사께서 "내 좌복(방석) 하나
펼칠만하면 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조숙량이 가볍게 생각하고 좌복을 보여달라 하니,
대사께서 당신이 깔고 앉은 좌복을 들어서
공중으로 던지니, 온 산을 다 덮었고,
그 네 모서리(귀퉁이)에는 사천왕이 위엄을 보이며
엄숙하게 방석귀를 잡고 서 있었다.
대사의 위신력에 깜짝 놀란 숙량은 수백만 평 되는
자기 소유의 그 산을 몽땅 다 드리고
깊이 불교에 귀의하였다 한다.

보리달마는 인도 향지국의 왕자로서 셋째 아들이다.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이은 28대 조사로서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온 보리달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펼쳤으나,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운명론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음양오행술이나
관상술에 대한 동양학에 더 관심이 많았고,
불교의 가르침에는 별 호감을 느끼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을 기다리며 숭산 소림굴에서
9년간이나 면벽관심面壁觀心하였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벽관바라문이라
불렀다. 시절인연이 도래到來했음을 알고
소림굴에서 과감하게 나오셔서
최초의 제자 신광神光을 제도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삼삼조사의 맥으로 흘러갔다. 삼삼조사가
바로 육조 혜능대사임을 대체로 다 아는 사실이다.



선禪의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지만,
대체로 여래선, 조사선, 남종선, 북종선, 대승선,
소승선, 간화선, 묵조선, 외도선, 범부선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을 들여다보자.
이입二入이란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다.
또 사행四行이란 보원행報冤行, 수연행隨緣行,
무소구행無所求行, 칭법행稱法行이 있다.
이입사행론은 선 수행뿐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본래적 마음을 수련하는 근간根幹이 된다.

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 達磨大師 -

4 행론行論

1. **보원행報冤行**: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원망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없는 것이다.
봉고불우逢苦不憂라 괴로움을 겪어도
걱정하지 말 것이니, 마음이 크고 넓고 비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생의 업보는 피하기 어렵지만 삶이
항상 괴롭거나 항상 즐겁지만도 않다.
그게 인생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상대성이론처럼
시소같이 번갈아 찾아온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담장처럼 아주 고요하면,
가히 도에 들만하다 할 것이다. - 달마대사 -

2. **수연행 隨緣行** : 인연을 거슬리지 말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 오는 인연 막지도 말며,
가는 인연 붙잡지도 말고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분별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3. **무소구행 無所求行**: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가지고
빌고 바라는 마음을 쉬라는 것이다.
반야심경에도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로,
즉, 얻을 바가 없으므로,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연고로 마음에 장애가
없고 마음에 장애가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顚倒夢想의 뒤바뀐 생각을 멀리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한다.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이 온전히 쉬워져야 열반의
경지에 든다고 한다. 무엇을 얻고자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얻겠다고 노래 불러도 얻기 어렵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필요한 만큼 충족되는 것이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필요충분조건' 중에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소원을 가히 빌 것이 있으면
항상 불만족하고 두렵고 얽매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 만족하여
더 구할 것이 없어져야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소원해야 비로소 마음의 해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4. **칭법행 稱法行**: 법도에 맞추어 행동하는
여법如法한 행위이다.
법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법에는 '나(我)'라는 고정된 실체로서 나가 없으니
'나'라는 분별심이 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마서래의 達摩西來意는
대승안심법문大乘安心法門이라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게 하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이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대승의
안심법문이라 실상 무상하고 미묘한 법문은
문자를 따로 세우시지 않고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하는 법문이니, 바로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서
성품을 스스로 보게 하여 붓다의 깨달음에
들게 하는 안심법문이다.

부처님의 유교경 遺敎經에서는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 법귀의法歸依
자귀의自歸依'를 말씀하시고 물어볼 말이 없느냐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자상함을
보이시고 대답이 없자.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돈, 명예, 사랑, 권력, 목숨까지도) 잠시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이르셨
다.
열반에 드시겠다는 여래의 말씀에 여러 제자들이
눈물을 훌쩍거리자 무엇을 슬퍼하는가?
여래는 본래 생사가 없는 무생법인인데
아직도 공부가 미진하여 그러는구나!
(사실 道人도 위대하신 스승님을 보내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것이지, 세속적인 정리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대열반에 드시고 나니



천안제일 아니루타가 부처님의 열반의 경지를
중개하기 시작했다.
"초선정천에 드셨습니다. 이선정천, 삼선정천,
사선정천 등으로… 구경에는 멸진정을 경유하여"
중개가 끝났다.
부처님의 보체寶體는 어떤 불로써 태우지 않았고,
불이 붙지도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의 삼매력으로 일으킨 삼매화三昧火로써
다비식을 장엄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
"법의 등불을 밝힐 것이며,
스스로 정진등을 밝힐 것이며,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스스로에게 귀의하라."
이르신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남긴 유훈遺訓이시다.

誰知王舍一輪月 萬古光明長不滅
呵呵他日具眼者 見之當發大笑矣
– 함허득통涵虛得通 –

뉘, 알리오. 왕사성의 둥근달이
만고에 광명이 길이 멸하지 않음을
하하하! 우습도다. 다른 날 눈 밝은 이가 있다면
이것을 보고 마땅히 크게 웃을 것이다.
– 함허득통 –

내 인생의 花일라이트!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방금까지 이슬비 맞으며 밭에서 일하다 들어왔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엷은 빗소리가 들려 반가웠다. 얼마나 기다렸던 비 소식이었는지
모른다. 다른 일을 작파하고 미루었던 대파 모종을 서둘러 심고 온 것이다.
거의 한 달여 정도 땅이 말라 호미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 비 오는 날만
손꼽아 고대했다. 이제야 가뭄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던
들깨 모종도 힘을 받게 생겼다.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매일 화분과 수목에
'물 공양'하느라 조석으로 바빴다.
올봄에 목수국을 수백 그루 구해와 심었다. 국화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목수국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국화재배는 진딧물에도 약하고
장마철에 꽃대가 잘 영글지 않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번에 정원 주제를 바꾸었다.
이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정원의 풍경이 제대로 자리 잡으며
완성되는 것 같다. 그런데 초파일 지난 뒤 늦게 심은 목수국들이 신경 쓰였다.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해 금방 메말라 잎이 타들어 가기 때문.
매일 살피며 물을 주었지만, 그사이에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않아 잎이 하나둘 시들었다.
그들은 물 한 모금으로 거의 한 달을 유지한 셈이다. 생존전략을 보면 안타깝고 놀랍다.
수분이 부족하면 아랫부분의 잎부터 희생시키고 윗부분의 꽃봉오리를
최대한 보호한다. 수분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기어이 꽃을 피우려는
그 생명력이 경이롭다.
그저께도 거의 말라가는 목수국을 살렸다. 꽃망울이 고개를 숙이면 그건 위험신호.
그때 응급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 그 즉시 물 공급을 충분히 해준 뒤
며칠은 돌봐야 한다. 그러므로 주인은 식구들을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하루 절을 비웠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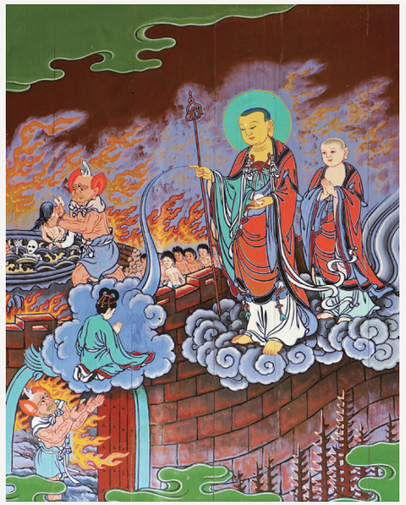
그래서 정원지기는 무더운 여름엔 외박 금지다.
올해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일이 더 많아졌다.
밖에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하우스 안에는
물 주어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그곳에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바질 등을 심었다.
그 안에서 자란 상추는 부드럽고 고소하더라.
비닐하우스 입구에 블루베리를 심어 놓고 오며 가며
따먹는다. 때론 힘에 부치더라도 농사짓는 재미가
이런 게 아니겠는가.

옛글에 보면
'신개장포일삼과新開場圃日三過'라는 표현이 있다.
새로 일군 텃밭을 날마다 세 번 돌아본다는 뜻.
그 전 사람들도 텃밭을 일구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근처를 가보며 돌보았을 것이다.
어디 하루 세 번뿐일까. 물주고, 김매고,
약 치며 관리해주어야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
무엇이든 그냥 되는 건 없다.
아무튼 여름날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과

정원 일로 정신이 없다.
늘 새벽부터 장화를 신고 호미를 들고 사는데도
하루가 부족하다. 예초기를 메고 여러 날 주변 풀을
잡았지만, 아직도 절 입구 길섶의 풀은
웃자라고 있다. 이번 비 그치고 나면 잘라 줄 것이다.
그나마 이제까진 땅이 메말라 있어서 풀의 세력이
더디고 여렸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도 텃밭과 정원이 있어서 근면하고
성실해진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더위를 핑계 삼아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정원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매일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내 귀에 번쩍 들어왔다.
나도 아침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성이었는지 모르겠다. 요즘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한낮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밭으로 나가는 건
농부로서는 예의가 아닐 것이다.
불교철학에 심취하여 인생 잠언을 전했던
쇼펜하우어는 얼굴이 못나고 성격이 괴팍하여
평생 홀로 살며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격려는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삶이 괴로우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 "가끔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는
이런 절구는 막연한 위로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가르침이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간다." 이 격언은 참 쉬우면서도
가슴에 남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선사 같은 이런 법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원을 가꾸며 자연에 깃들어 살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려 식물과 더불어 사색하며
성찰하는 삶은 늘 생명에 환희와 감사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월의 우리 정원엔 어떤 꽃이 피었을까.
며칠 전부터 능소화가 고운 자태를 선보이더니
수국이 피었다. 산책하다가 꽃을 보면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들은 색깔과 향기로
말을 건넨다. 치자꽃이 소년 같은 얼굴을 내밀었다.
바늘꽃도 한창이고, 원추리도, 벌개미취도 피었다.
작년의 씨가 떨어져 버들마편초가 그 근처에
무리 지어 피었다.
이제 배롱나무 꽃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나무는 봄날에 고인이 되신 우암동 노보살이
오래전에 심은 것이다.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아
그이를 기억해 주고 있다.
그분은 이번 여름에도 저 꽃 아래에 서 있기로
약속했는데 그 일을 지키지 못했다.
내일의 약속이란 백 퍼센트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약속 이행이 내일의 연속일 것이다.
문득 그 일이 내 명상의 실마리가 되었다.
지금 꽃을 보고 있는 현재가 내 인생의 절정이다.
그래서 어제는 붓을 들어 이런 글귀를 적어
정원에 세웠다.
지금이 내 인생의 花일라이트!
달리 다른 시절이 없다.

목련존자의 구모생천救母生天

편 집 실


목련구모도

우란분이란《우란분경》에 나오는 말로
범어 울람바나 (ullambana)의 발음이다.
처음에는 '오람바나烏藍婆拏'라고 표기했다가
나중에 '오람'을 '우란盂蘭'으로 '바나'는 그 뜻이 '분盆'이므로
'우란분盂蘭盆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번역하면 도현倒懸, 즉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다.
목련경을 보면,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풍業風에 날려
거꾸로 매달려 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지옥과 아귀도에 떨어진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인간이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육체의 부자유, 정신의 부자유가 바로 도현이다.
우란분재盂蘭盆齋란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孤魂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재를 베풀어 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어리석어 세상을 잘못 보고 거꾸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들, 세속의 참된 가치를
버리고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짓밟았던 일,
부모님에게 불효한 일이나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일 등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세우는 데 참 뜻이 있다.
우란분회 또는 우란분재의 역사적 기원은 부처님 재세시에 목련존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란분회는 목련존자의 구모생천救母生天이라 하여 널리 회자되어 왔으며
〈목련경〉과 〈우란분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화창한 법주사의 여름

자연이 기지개를 펴는 여름 법주사의 하루

마음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말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법구경–

2024. 7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5.26 백중입재	2 27 합창단법회	3 28	4 29	5 30	6 소서 6.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광명진언기도 보현회 법회
7 2 백중초재	8 3 신중기도회향 다도반법회	9 4	10 5	11 6	12 7	13 8 약사재일
14 9 백중 2재	15 초복 10	16 11	17 12 제헌절	18 13 월주대종사다례	19 14	20 15 보름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1 16 백중 3재 미륵재일	22 대서 17 다도반법회	23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4 19	25 중복 20	26 21	27 22
28 23 백중 4재	29 24 관음재일	30 25	31 26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6월 1일 열암곡참배 마애부처님바로모시기 다라니기도



6월 6일 초하루법회

미륵재일 기도

다가올 미래에 공덕과 불법을 펼쳐 중생들을 교화해 주시는 미륵부처님께
매달 미륵재일마다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일　시 매월(음) **16~18**일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초하루 신중기도

매달 초삼일 동안 불보살님과 불법을 옹호하고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104위 신중님께 신중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업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일　시 매월(음) **초하루 ~ 초삼일**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7**월 **6**일(음 6월 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동참금 : **2**만원

■ **기도동참문의** 원주실 (043) 543-4755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4년 **7**월 **20**일(음 6월 1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지장재일 기도

지장地藏기도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영가(조상)를 각성시켜
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에 동참하셔서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기도로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매월(음) **18**일 / 명부전
동참금 **2**만원

